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47) - 동음사(洞陰祠)**

청동기 시대의 부족장 무덤으로 알려진 선사유적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4호
· 소재지 :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35
· 규모 : 건평 12.35坪
· 비고 : 金聲大(김성대), 金平默(김평묵), 金聲發(김성발), 金聲玉(김성옥)



포천시 이동면 수암리 13-5에 위치한 수암리 고인돌(水入里 支石墓)

동음사(洞陰祠)는 이동면 연곡리 735번지에 있다. 안산 김씨(安山金氏)의 선조인 촌로(村老) 김성대(金聲大·1622~1695)선생과 아우 반성재(反省齋) 金聲發(김성발·1624~1695), 동구(東丘) 김성옥(金聲玉·1818~1891) 선생, 그리고 청풍 김씨(淸風金氏)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1818~1891)등 네 분을 봉향하고 있는 사당이다. 사당안에는 네 분의 위패와 촌로·중암 선생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1961년 11월에 포천의 유림과 후손들에 의해 사당 건립의 일이 발기되고, 이듬해 9월에 비로소 준공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88년에 군비와 후손들의 성금 6천여만원을 들여 세운 것이다. 사당은 겹처마 맞배 지붕의 목조건축물로 2익공에 병풍문을 달았다.

정면 7.2m, 측면 5.4m의 규모이다. 솟을 3문 역시 맞배기와에 골기위를 올렸다. 제향일은 매년 3월 중해일(中亥日)이다.

교육에세이 20

삶의 자세

은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에는 황금물결이 푸른 하늘을 향해 결실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새싹이 나서 튼튼하게 자라려면 영양분과 물과 태양의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웃으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는 모습은 누구나 아름다우며 긍정적인 자세로 사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웃음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웃음이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수관 선생님은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이라고 강조하며 많이 웃기를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회 이상 웃지만 어른들은 보통 17회 정도 밖에 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일인 정신과 의사인 미하엘티체 박사는 웃음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

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다가 생활이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웃는 모습으로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둘째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입니다.

요즘을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 편리함을 추구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 갈 21세기는 무한의 경쟁 시대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회장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회사원 한 명을 모집하는데 오직 면접으로만 채용하겠다고 광고를 하니, 수많은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면접은 "돈을 한 달에 얼마나 주었으면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받겠다는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하십시오"

너무도 쉽게 합격하여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킬까? 열려 속에 출근하였으나, 하는 일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흰 종이 수백장을 책상에 쌓아 놓고 책상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다시 책상으로, 근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한 장씩 옮겨 놓는 일이었

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쉬어 이런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 걸... 그러나 그 사람은 몇 달이 못 가서 사표를 제출하고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종이를 쌓고 내려놓는 일이 과연 내가 할 일인가? 과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 회사원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려웠던 미국 경제 속에서도 일하기 편리함만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기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노력을 해야 하였습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는 생활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탄탄한 미래상

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가끔 개(犬)를 키우면서 우리생활과 연관지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불신 풍조가 만연하여 친구를 배반하고, 이웃을, 심지어 가족끼리도 믿음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개는 절대로 믿음에 대한 배신이 없고 정말 자기 주인에 대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서로 믿음을 주는 생활,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항상 웃으며, 뚜렷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생활로, 보람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항상 웃으며, 뚜렷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생활로, 보람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항상 웃으며, 뚜렷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생활로, 보람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항상 웃으며, 뚜렷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생활로, 보람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최 두 열 대표이사

전기공사전문업체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기타 전기공사
- 빌딩
- 호텔
- 소방설비공사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

세익스피어 에세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라는 샤일록의 정의는 옳은가 그른가



박 정 군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세상은 강한 자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자나 소수는 그들이 정한 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소외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은 사회 공동체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다.

요즘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소수가 정체를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FTA에 합의하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의 경제에 예속되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잔인한 물결은 노동과 같이 흘러 소수와 약자의 삶의 터전을 약탈하는 현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이 없다.

‘베니스의 상인’은 세익스피어의 희극으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베니스에 사는 유대인 샤일록의 이야기

“소수에 대한 진정한 배려나 포용이 없는 다수의 결정은 소수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를 극화하고 있다. 샤일록은 베니스에서 고리대금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는 점과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의 얼굴에 짐을 벨는 기독교인에게 당한 수모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원한으로 가득 차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나 돈이 궁한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도와주거나 무이자로 돈을 꾸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자를 노리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샤일록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의 목을 조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마침 그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안토니오는 포셔라는 부호의 딸에게 구혼을 하려고 떠나려는 베사니오를 도우려고 샤일록에게서 급하게 삼천 더커트의 거금을 빌린다. 샤일록은 돈을 꾸어주는 조건으로 이자대신 살 한점을 달라는 해괴한 증서를 쓰게 한다. 안토니오는 친구 베사니오를 절대 신임하기 때문에 얼마 안된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샤일록은 자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집단적 새디즘에 대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연장에 다치

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약에 낫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 어디가 예수쟁이들과 다르단 말인가. 찢려도 우린 피가 안 난단 말인가. 간질여도 웃지 않는단 말인가. 독을 먹여도 죽지 않는단 말인가. 모욕을 당해도 복수 없는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복수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샤일록은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도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것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면서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인간취급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응어리진 반감의 표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수인 유대인으로서 다수인 기독교인들에게 당한 설움을 바탕으로 나름의 복수의 논리를 세운다. “가령 유대인이 그리스도 교도를 모욕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 교도의 관용은 뭐겠소? 복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도가 유대인을 모욕한 경우, 그리스도 교도들을 본 판단면 유대인은 어떤 인내를 해야겠소. 물론 복수요. 당신네들이 가르쳐 준 약행을 나도 실천하겠어.”

샤일록의 생각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가한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과 정도로 앙갚음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있다. 그야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성서적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샤일록 같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독선적 심판과 공격이 약자로서 극심한 피해의식을 자라게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할지라도 작은 실수를 죽음으로 보복하겠다는 샤일록의 생각은 반사회적임에 틀림없다.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새디즘(가학증)을 일종의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진단한다면, 샤일록의 보복 집착 또한 개인적 가학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인 기독교인들이나 소수인 샤일록은 모두 서로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극심한 병적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상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 제시카가 돈을 훔쳐 도망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의식과 겹치면서 보복심리는 더욱 증폭된다. 그는 마치 안토니오가 자신의 불행한 현실의 원인자인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장을 하여 그에 대한 살의를 키운다.

그러나 남성들의 폭력적 행위로 발생한 정의의 혼돈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인 포셔이다. 그녀는 베사니오의 약혼녀로서 그의 곤경을 파악하고 법학박사로 분장한 뒤 살한 점의 정의를 요구하는 샤일록의 보복 심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다.

안토니오가 빚 청산을 증서에 적힌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자신의 논리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살 한 점을 요구하는 샤일록의 잔폐가 지닌 허점을 간파한 포셔는 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형벌이 살 한 점 이외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지혜에 샤일록은 무릎을 꿇고 만다. 샤일록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정의가 법적으로는 옳은지 모르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관용이나 사람이 없으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에 대한 진정한 배려나 포용이 없는 다수의 결정은 소수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원심력을 발휘하는 소수를 견안하는 다수의 관용이야말로 샤일록 같은 비틀어진 사고방식을 치유할 수 있다. 남북갈등과 동서갈등으로 심한 분열증에 시달리는 한국사회는 ‘베니스의 상인’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